

청일전쟁·동학농민전쟁 120년

2014년 4월 7일

나카쓰카 아키라(中塚 明)

나라여자대학(奈良女子大学) 명예교수

일본 안팎에서 일본인의 역사인식을 묻는 지금, 올해가 청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자각적으로 상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아시아의 압박국(压迫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일본이 처음으로 아시아에서 대규모의 항일투쟁에 직면하게 된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는 조선에서 일어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난 지 1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이 일본이 안팎으로 선언한 청일전쟁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일본의 첫 번째 공격은 조선의 수도 서울의 왕궁인 경복궁을 점령하여 국왕을 사실상 일본의 포로로 만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청일전쟁 100년이 되는 해인 1994년, 후쿠시마(福島)현립도서관 '사토(佐藤)문고'에 있는 참모본부 편찬의 청일전사(淸戰史日) 초안에서 조선왕궁 점령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발굴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그 다음 해인 1995년, '한국 동학 수괴의 수급(首級: 싸움터에서 벤 적의 목-역자 주)'이라고 쓰여 있는 두개골이 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学)의 역사적인 건축물 후루카와(古川)기념강당의 한 연구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유골은 한국으로 봉환되었지만, '동학 지도자의 두개골'이 일본의 국립대학의 연구실에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의 학문과 지식 세계에 심각한 반성을 촉구했으며, 그 뒤의 역사연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유골의 유래를 조사하기 위해 한국의 동학연구자인 박맹수(朴孟洙)씨(원광대학교 교수)가 1997년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박맹수 씨는 홋카이도대학에서 유학을 하며, 같은 대학 문학부 교수인 이노우에 가쓰오(井上勝生)씨와 함께 동학농민에 대해 일본 정부·일본군은 어떤 짓을 하였는가에 대해 본격적인 규명을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제가 조선왕궁 점령사건에 대해 『역사의 위조를 바로잡는다(歴史の偽造をただす)』(고분켄 高文研, 1997년)를 출판하여, 박맹수 씨·이노우에 가쓰오 씨와의 친교도 시작되었습니다. 졸저는 박맹수 씨가 번역하여, 한국 사람들도 잘 아는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라는 제목으로 서울에서 출판되었습니다(푸른역사, 2002년).

그 뒤 한일양국에서 청일전쟁 시기 조선인의 항일투쟁, 동학농민전쟁과 일본 정부·일본군의 탄압작전에 대한 연구가 눈부시게 진전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노우에 가쓰오 씨가 조사, 연구를 선도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을 주력으로 하는 조선의 항일투쟁을 섬멸하기 위해 일본에서 급파된 후비(현역과 예비역을 마친 다음의 병역-역자 주) 보병 제19대대의 대대장 미나미 고시로(南 小四

郎) 소좌(少佐)의 후손을 찾아내, 미나미 가문에 전해내려 온 고시로의 군용 행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행장에는 조선 지방관의 문서, 토벌 일본군 장교와 미나미 소좌 자신의 보고서 등이 들어있었습니다. 백 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그 문서들은 미나미 가문 당주(当主)의 현명한 판단으로 야마구치(山口)현 공문서관에 기증되어 공표되었습니다.

또한 후비 보병 제19대대를 구성했던 병사들의 출신지인 시코쿠(四国) 네 개 현(県)에서의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작전에서 유일하게 전사한 도쿠시마(徳島)현 출신의 '스기노 도라키치(杉野虎吉)'라는 병사가 있었는데, 이노우에 씨는 그의 묘소 등을 자세히 조사하였고, 향토사학자의 협력으로 작전의 실태를 상세히 기록한 어느 병사의 '진중일지'도 찾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군 섬멸작전의 양상이 전율을 느끼게 할 만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항일에 펼쳐 일어선 포로에 대해 명령이 떨어지면 총검으로 찔러 죽이는 일은 쇼와(昭和)의 전쟁인 중일전면전쟁에서 많이 일어났는데, 실은 이것이 메이지(明治)의 전쟁인 청일전쟁에서 동학농민군의 섬멸작전 때 이미 실행되었다는 사실도 이 기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들 일본인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박맹수 씨와 이노우에 가쓰오 씨 그리고 제가 함께 쓴 『동학농민전쟁과 일본-또 하나의 청일전쟁(東学農民戦争と日本-もう一つの日清戦争)』(고분켄, 2013년)과 이노우에 가쓰오 씨의 역작 『메이지 일본의 식민지 지배(明治日本の植民地支配)』(이와나미쇼텐 岩波書店, 2013년)는 이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연구성과입니다. 『동학농민전쟁과 일본-또 하나의 청일전쟁』은 한국에서도 번역되어 머지않아 출간될 예정입니다.

일본인의 역사인식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실마리로 읽어주신다면 기쁘겠습니다.

◆ 나카쓰카 아키라(中塚 明)

[약력] 1929년 오사카(大阪) 출생. 교토대학(京都大学) 문학부 사학과 졸업. 1958~1993년 나라여자대학(奈良女子大学) 교수.

[전문] 일본군대사

[저서] 『청일전쟁의 연구(日清戦争の研究)』(아오키쇼텐 青木書店, 1968년), 『건건록의 세계(「蹇蹇録」の世界)』(미스즈쇼보 みすず書房, 1992년), 『역사의 위조를 바로잡는다(歴史の偽造をただす)』(고분켄 高文研, 1997년)<번역판: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푸른역사, 2002년)>, 이노우에 가쓰오·박맹수와 공저(井上勝生・朴孟洙と共著) 『동학농민전쟁과 일본-또 하나의 청일전쟁(東学農民戦争と日本-もう一つの日清戦争)』(고분켄, 2013년) 등.